

-자마자

~하자마자 — 곧바로, ~하는 순간

두 사건이 사이를 두지 않고 곧바로 이어짐을 나타냅니다. 모음 규칙도 시제도 없이 어간에 그대로 붙어, 이 단계에서 가장 간단한 어미 중 하나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	-자마자	먹다 → 먹자마자
ㄹ 어간은 ㄹ 유지	-자마자	만들다 → 만들자마자
주어가 다를 때	가능	제가 나가자마자 비가 왔어요
명령 가능	-자마자 + 세요	도착하자마자 전화하세요
시제 불가	어간에만 붙음	갔자마자는 틀림
비슷한 표현	-는 대로, -자	도착하는 대로

■ 언제 쓰나요

-자마자는 모든 동사 어간에 붙습니다: 도착하자마자, 먹자마자, 만들자마자. 형태 변화가 없고 ㄹ도 그대로 남으며, 시제는 마지막 동사에만 붙입니다.

두 절의 주어가 달라도 됩니다.: 제가 나가자마자 비가 왔어요. 이 점에서 주어가 같아야 하는 -(으)면서와 다릅니다.

이유나 조건의 뜻은 없고 즉시성만 나타냅니다. 그리고 그 즉시성은 실제적이어서, 두 사건 사이에 눈에 띄는 시간 간격이 있으면 -(으)ㄴ 후에나 -고를 대신 씁니다.

모든 연결 어미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, 뒤에 명령이나 청유가 올 수 있습니다: 도착하자마자 전화하세요.

■ 예문

- 1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하세요.
- 2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셔요.
- 3 제가 나가자마자 비가 왔어요.
- 4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갔어요.
- 5 그 말을 듣자마자 웃음이 나왔어요.
- 6 음식을 만들자마자 다 먹었어요.

■ 비교

-고 나서

-고 나서는 앞의 행동이 끝난 뒤 다음 행동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고, -자마자는 곧바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. 즉시성을 나타내는 것은 -자마자뿐입니다.

밥을 먹고 나서 나갔어요. (먹은 다음에 나감) / 밥을 먹자마자 나갔어요. (다 먹은 순간 바로 나감)

-는 대로

의미가 매우 비슷하지만 -는 대로는 앞으로의 약속이나 지시에 주로 씁니다. -자마자는 과거의 일에도 자유롭게 씁니다.

도착하자마자 전화했어요. (도착하자 바로 전화함) / 도착하는 대로 전화할게요. (도착하면 곧 전화하겠음)

-(으)면서

-(으)면서는 두 행동이 겹치며 주어가 하나여야 하고, -자마자는 두 행동이 차례로 일어나며 주어가 둘이어도 됩니다.

나가면서 전화했어요. (나가는 중에 전화함) / 나가자마자 전화했어요. (나간 직후에 전화함)

■ 주의

✗ 집에 갔자마자 잤어요.

○ 집에 가자마자 잤어요.

-자마자에는 시제를 붙이지 않습니다. 과거는 마지막 동사에서 한 번만 나타냅니다.

✗ 졸업하자마자 삼 년 후에 취직했어요.

○ 졸업하고 삼 년 후에 취직했어요.

-자마자는 간격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. 사건 사이에 시간이 흘렀다면 -고나 -(으)ㄴ 후에를 쓰세요.

✗ 도착하자마자 전화하세요.

○ 도착하자마자 전화하세요.

-자마자는 완결된 어미이므로 뒤에 조사를 붙이지 않습니다.